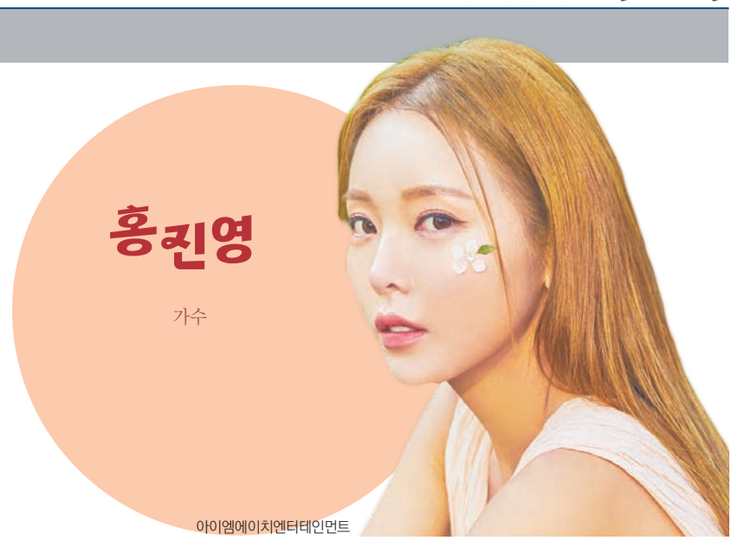
논문 표절에 자숙… 애절함 담아 신곡 '다시, 봄' 출반



홍진영은 조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광주은행 상임 감사를 지낸 홍금우 씨의 2녀 중 둘째로 1985년 태어났다. 2006년 드라마 '연개소문'으로 안방극장에 배우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이듬해 걸그룹 '스완'으로 가수로 첫 발을 뗐다. 하지만 1집 활동이 끝나자마자 소속사의 부도로 연기자로 다시 전환했다.

이후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합류 제의를 받았으나 '스완' 실패 경험의 트라우마로 고사하고 2008년 예능 '사이다' 코너 중 직장인들의 기막힌 실수담들을 코믹하게 담은 코너 '안나의 실수'에 출연하면서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20대 초반 소속사로부터 트로트 가수를 권유받고 2009년 6월 '사랑의 배터리'라는 트로트 앨범을 발표해 데뷔했다. 처음 곡을 받았을 때 느낀 감정에서 그는 "제목과 가사를 보고 너무 유치해서 펑펑 울었다"며 "배터리는 뭐고, 채워주긴 뭘 채워주나



싶어 저조한 기분으로 녹음했다. 그런데 녹음이 끝난 후에야 좋은 노래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랑의 배터리'의 대성공으로 출연 행사비가 껑충 뛰면서 '행사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내 사랑' '산다는 건' '부기맨' '엄지 척' '잘 가라' '오늘 밤에' 등 다양한 히트곡을 꾸준히 발매하며 승승장구했다.

2019년에는 팬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자신도 노래로 사랑을 담아 보낸다는 뜻을 담은 첫 정규앨범 'Lots of Love'을 발표했다.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담은 앨범에는 자작곡과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가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타이틀 곡 '오늘 밤에(Love Tonight)'는 1980년대 디스코펑키 장르와 트로트의 새로운 조화로 탄생한 레트로풍 트로트 곡으로 신스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디스코팝 사운드를 가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논란 없이 순조로운 활동을 이어갈 줄 알았지만 2020년 석사 논문 표절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홍진영은 2009년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조선대 무역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2012년에는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2020년 10월 논문 표절 의혹에 부인하면서 "지난 10여 년을 땀과 눈물을 쏟으며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구설에 오르니 저 또한 속상하다"며 "이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다"며 "석사·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몇 개월 뒤 표절이 확정되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약 1년5개월 만인 2022년 4월 새 음반으로 복귀했고 2022년 12월 예능 '불타는 트롯맨'으로 약 2년1개월 만에 방송에 얼굴을 드러냈다.

데뷔 15주년이었던 2022년 12월 두 번째 미니 앨범 '컬러 무드', 2023년 4월 리메이크 싱글 '술 한잔해요'를 발매해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홍진영은 19일 신곡 '다시, 봄'(부제: 메말랐던 화분 속에 꽃이 피듯이)을 각 음원사이트에 발매해 다시금 가수로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신곡은 묵직함이 감도는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시작돼 담백하고 애절하게 이어진다. 후렴구에서는 홍진영의 호소력 있는 보컬과 웅장한 스트링 사운드코러스가 조화를 이뤄 사랑의 기다림을 담담하게 표현한다.

홍진영과 오랫동안 음악적 교감과 우정을 쌓아 온 프로듀서 알고보니혼수상태가 작곡·작사·편곡 전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다.

홍진영은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대상이 봄을 떠올리며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이들에게 기적과 긍정의 에너지가 감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해 '봄'에 이어 '다시, 봄' 연작을 내놓게 됐다"고 신곡 발표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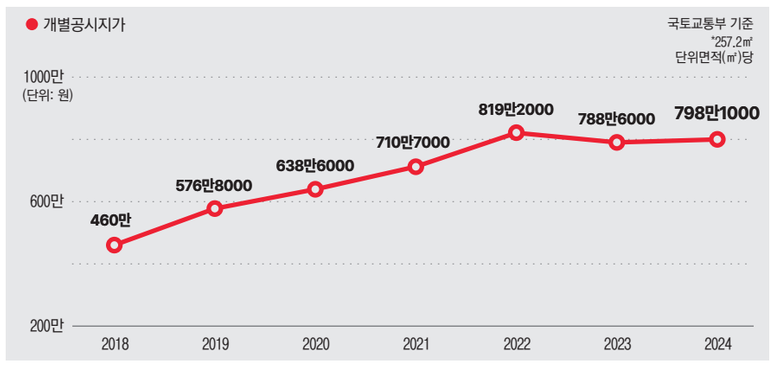
한편 그는 직접 설립한 1인 기획사 아이엠에이치엔터테인먼트 법인 명의로 2023년 8월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소재 빌딩(**사진**) 한 동을 35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빌딩은 지상 5층·대지면적 135.37㎡(약 40.94평)·연면적 270.71㎡(약 81.88평) 규모로 매입 후 일주일 만에 잔금을 모두 치르면서 재력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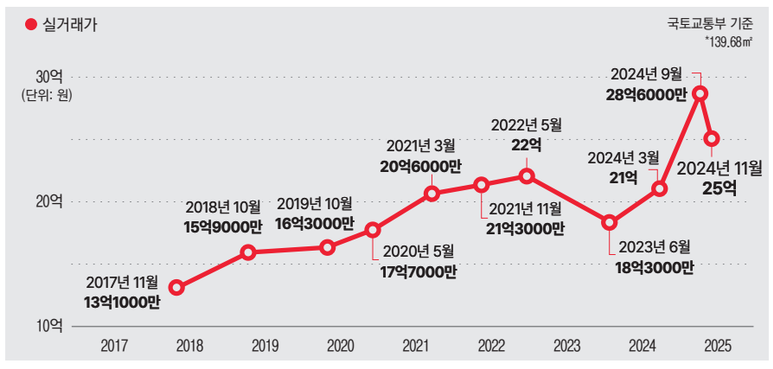
최근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업지로 각광받는 성수동에 인접한 송정동은 시세가 성수동에 비해 저렴해 단독·다가구·빌딩 등 부동산 투자 유망지로 꼽힌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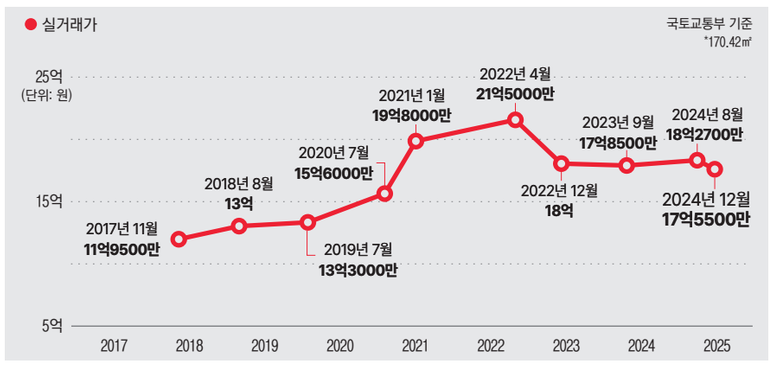
빌딩



옥수하이츠



옥수극동



하지원 현)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은 1996년 드라마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을 몰라요'를 통해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1999·2000년에 걸쳐 방영된 드라마 '학교2'에서 독기 가득한 방황 청소년 장세진 역을 완벽히 소화해 눈도장을 찍은 뒤 영화 '진실게임' '동감' '가위' '색즉시공' '해운대' 등과 드라마 '다모' '발리에서 생긴 일' 등 여러 작품에 꾸준히 출연해 필모그래피를 늘렸다. 특히 '다모'에서 여성 수사관 다모 채옥 역을 맡아 상대역인 황보윤(이서진 분)과 애절한 멜로 연기를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아 그해 MBC연기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여자인기상·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 2006년 '황진이'로 최고의 황진이라는 찬사와 함께 KBS에서 생애 첫 연기대상을, 2013년 MBC에서 고려 출신 원나라 황후 기승냥 역을 연기한 '기황후'로 연기대상을 받았다.



서강현 현)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15년 현대자동차 회계관리실장·경영관리실장·2018년 해외관리실장을 거쳐 이듬해 현대제철 재경본부장 전무를 지냈다. 이후 2021년 현대자동차로 복귀해 부사장 직책인 기획재경본부장을 맡아 현대차그룹 재무라인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2020년 부사장 승진과 함께 현대차 재무최고책임자(CFO)를 맡았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경영 성과를 거뒀다. 2021년부터 현대차의 기획 부문도 겸임하면서 회사의 장기 방향 수립 및 미래 관점에서 투자 확대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 연말 인사에서 현대제철 대표이사로 승진해 2022년부터 철강업계의 수익 악화로 뒷걸음치고 있는 현대제철의 실적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선경 전)일산차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



이선경 전 일산차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는 국내에서 드문 회음부암 광범위절제술에 대한 다수의 임상성과를 축적한 부인종양 치료 분야의 전문가다.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37년간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근무했으며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과장·여성의학센터장·통합암센터장 등을 지냈다. 자궁근종·자궁상피내종양·자궁선근종·기능성 자궁출혈 등을 치료하는데 질식 자궁절제술이 기존 개복술이나 복강경하 자궁절제술보다 합병증이 적다는 사실을 국내에 처음 알렸다. 또한 자궁경부 질확대경과 자궁경부 확대촬영술을 활용한 부인암·부인종양 조기진단의 권위자로 대한부인종양학회 이사 및 감사를 역임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 및 학술위원회 위원·한국 자궁경부확대촬영연구회장 등 학회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